



넘버즈 200호 특집 구독자 설문 조사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넘버즈 구독자 설문 조사 개요

본 조사는 <넘버즈> 발간 200호를 기념하여 '넘버즈 구독자'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다양한 채널/콘텐츠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추후 방향성에 대한 구독자의 의견을 수렴·반영코자 진행되었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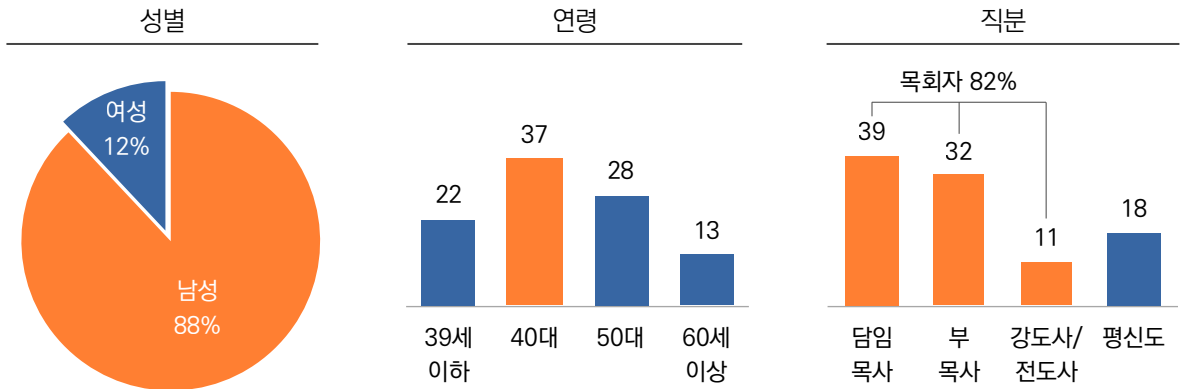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넘버즈 구독자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표본 규모	총 544명(유효 표본)
표본 추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 4.2% (95% 신뢰구간)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6월 21일 ~ 6월 27일(7일간)
조사 및 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01

[구독자 특성] 구독자 10명 중 8명은 목회자!

- ▶ 설문에 참여한 구독자 기준으로 10명 중 9명(88%)은 남성이며, 40대가 37%로 가장 많았다.
- ▶ 직분별로는 담임목사가 39%로 가장 많았고, 부목사/강도사/전도사까지 합치면 목회자 비율이 8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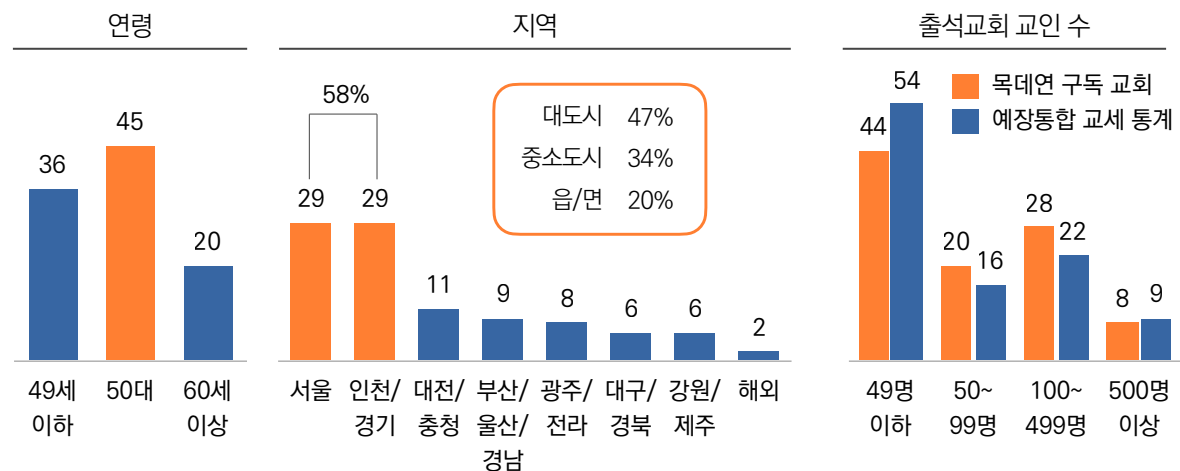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 (%)



◎ 넘버즈 담임목사 구독자, 49명 이하 소형교회가 44% 차지!

- ▶ 구독자 중 담임목사의 경우 연령대는 50대가 45%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8%를 차지했다.
- ▶ 교인 수로는 49명 이하 소형교회가 44%로 가장 많았는데 전국 평균(예장통합 교세 통계, 2021년)과 비교해 보면, 넘버즈 구독자는 전국 평균 대비 49명 이하 교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50명 이상 499명 사이의 교회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응답자 중 담임목사 특성 (%)



*예장통합교단, 2021년 기준 교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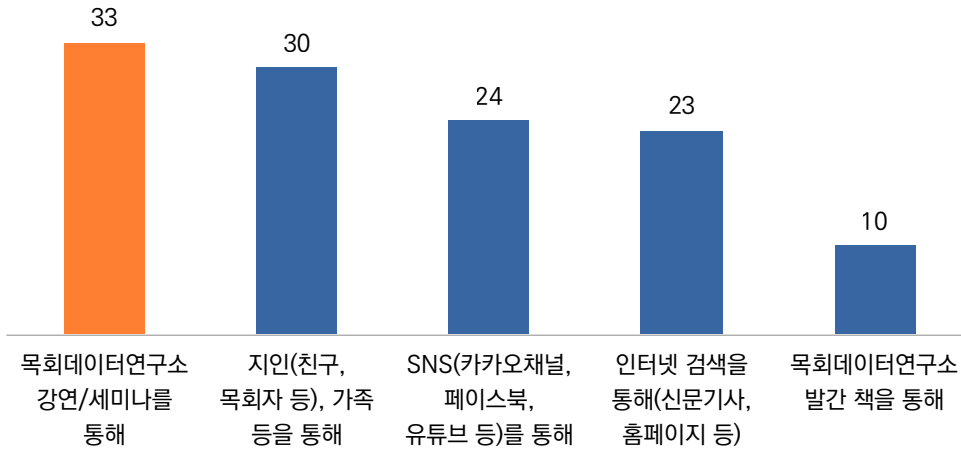
02

[넘버즈 구독 행태]

넘버즈 인지자 3명 중 1명은 강연, 세미나 통해 넘버즈 접해!

- ▶ 넘버즈의 인지 경로로는 강연/세미나를 통해서가 33%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그다음으로 지인, 가족 등을 통해서가 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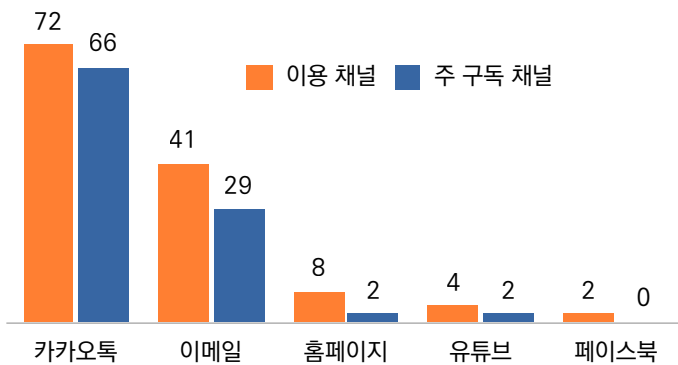
[그림] 넘버즈 인지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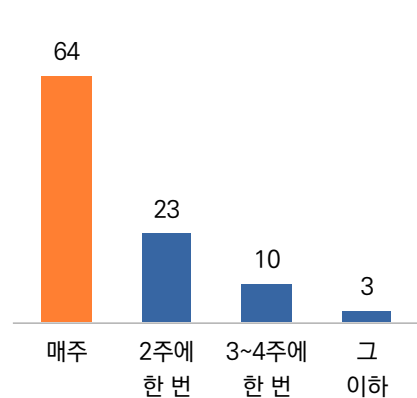
◎ 구독자 3명 중 2명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넘버즈 보고 있어!

- ▶ 넘버즈의 구독 채널로는 '이용하고 있는 채널'과 '주 구독 채널' 모두 '카카오톡'이 가장 많았다. 또한 3명 중 2명은(64%) 넘버즈를 매주 구독 중이었다.

[그림] 넘버즈 구독 채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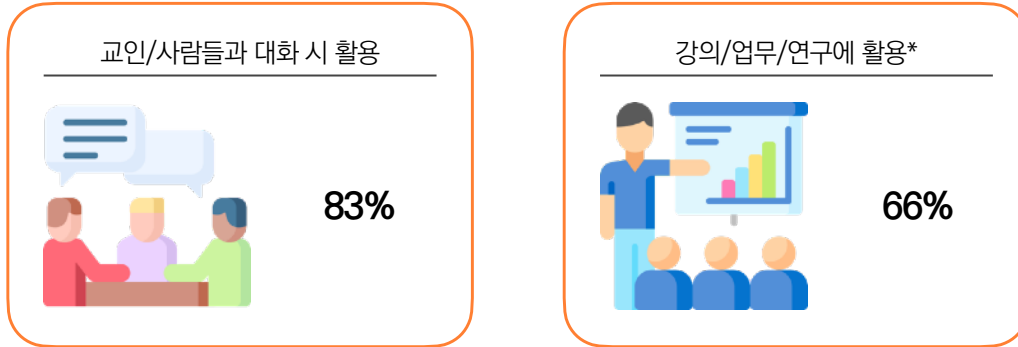
[그림] 넘버즈 구독 빈도 (%)



◎ 10명 중 8명 이상, 평소 대화에 넘버즈 통계 활용!

- ▶ 넘버즈는 통계 기반 데이터와 정보를 전달한다. 구독에 그치지 않고 평소 교인/사람과의 대화에 넘버즈를 활용하는 비율은 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강의/업무/연구에 활용하는 비율도 66%에 달했다.

[그림] 넘버즈 통계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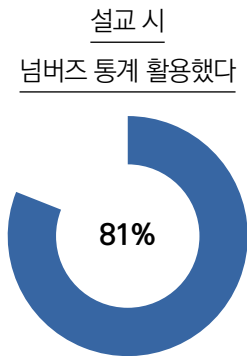


*'해당 없음' 제외하고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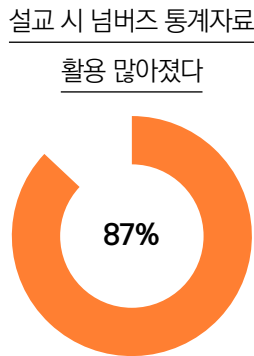
◎ 넘버즈 구독 목회자, '설교 시 넘버즈 통계자료 활용 많아졌다' 87%!

- ▶ 넘버즈 구독 목회자 10명 중 8명은(81%) 설교할 때 넘버즈 통계 활용 경험이 있으며, 설교 시 넘버즈 통계 자료 활용이 많아졌다는 비율도 87%에 달했다.

[그림] 설교 시 넘버즈 통계자료 활용 (목회자)



[그림] 설교 시 넘버즈 통계자료 활용 증가 여부 (일반적 통계자료 자주 활용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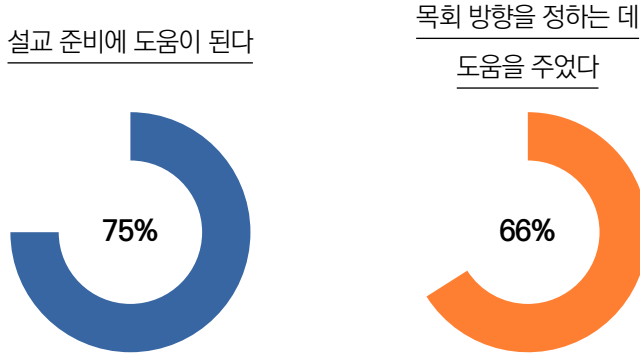
03

[넘버즈 만족도]

넘버즈, '목회 방향 정하는 데 도움 주었다', 66%!

- ▶ 목회자 구독자 4명 중 3명(75%)은 넘버즈가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3명 중 2명(66%)은 '목회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그림] 넘버즈 목회 도움 인식 (목회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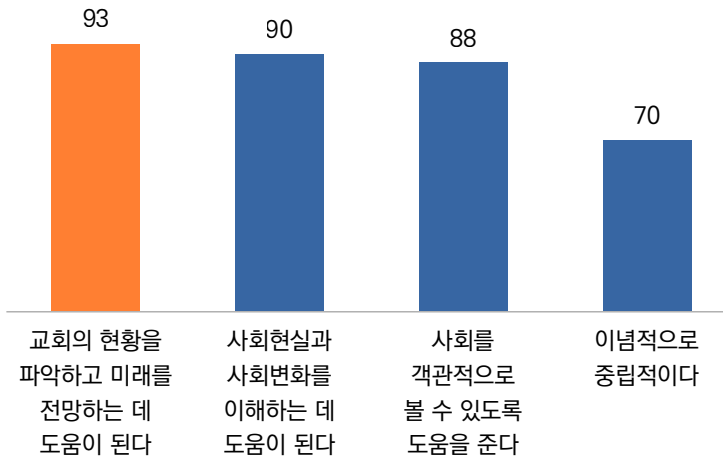


*5점 척도임

◎ 넘버즈, '사회 현실과 변화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90%!

- ▶ 구독자들은 넘버즈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교회나 사회의 현황과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 전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9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넘버즈 내용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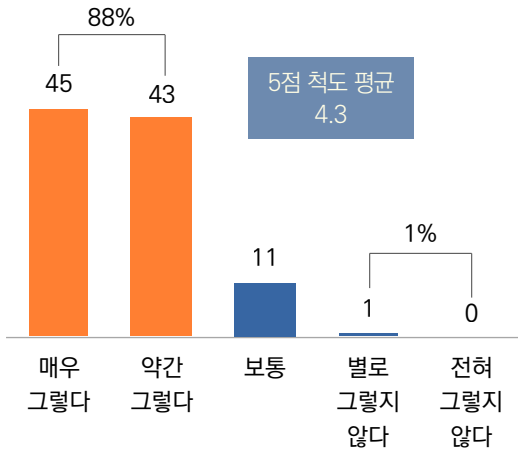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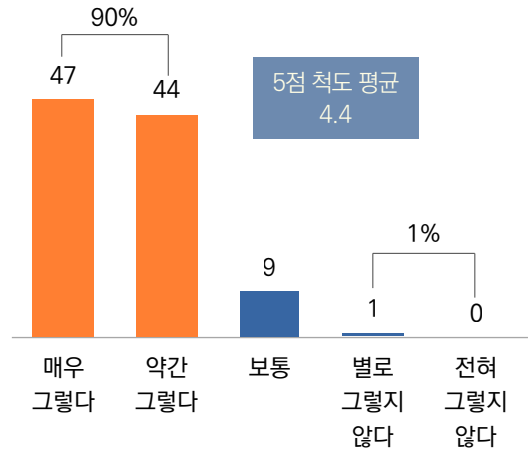
◎ 구독자 10명 중 4~5명, 넘버즈에 “매우 만족”!

- ▶ 전체적으로 넘버즈를 신뢰하는 비율은 88%, 만족하는 비율은 90%로 응답되었으며, 매우 신뢰 45%, 매우 만족 47%로 10명 중 4~5명 정도는 넘버즈에 강한 로열티를 보였다.

[그림] 넘버즈 전체적 신뢰도 (%)



[그림] 넘버즈 전체적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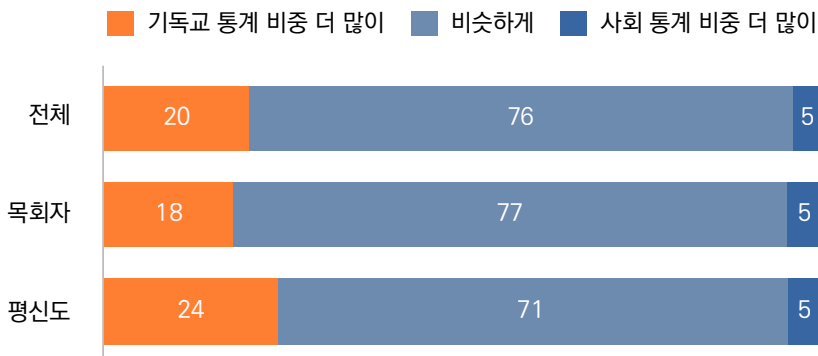
04

[넘버즈 콘텐츠]

기독교 통계와 사회 통계는 비슷한 비중으로!

- ▶ 넘버즈는 기독교 통계 관련 주제와 사회 통계 관련 주제를 다룬다. 넘버즈 발간 초기에는 사회 통계를 주로 다루었고, 최근에는 기독교 통계 비중이 좀 더 많은 편이다. 구독자들에게 이 두 가지 주제의 비중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비슷하게’가 7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통계 비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회 통계 비중을 더 많이’ 하자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 ▶ 직분별로 보면 ‘기독교 통계 비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목회자보다 평신도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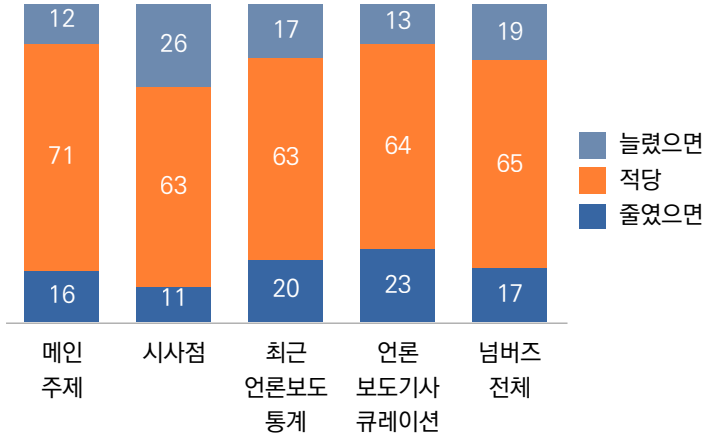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통계 vs 사회 통계 비중 (%)



◎ 구독자 3명 중 2명, 넘버즈 지금 분량 적당하다!

- ▶ 전체적으로 넘버즈의 분량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6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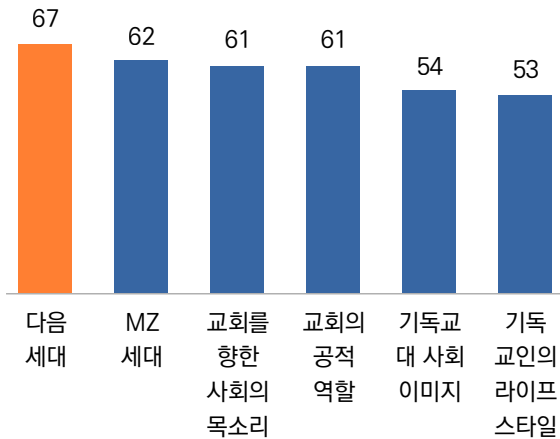
[그림] 넘버즈 구성 분량 적절성 (%)



◎ 관심 있는 넘버즈 주제, ‘다음 세대’와 ‘AI’ 많아!

- ▶ 30여개 정도의 기독교 관련 주제를 제시하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게 했다.
- ▶ 그 결과, ‘다음 세대’, ‘MZ세대’, ‘교회의 공적 기능’ 관련 주제가 60% 이상 호응을 얻었다.
- ▶ 주관식으로 물어본 기타 관심 영역으로는 'AI', '환경' 관련 주제가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기독교 주제 중 관심 있는 것 (중복응답, 제시된 보기 중 상위 6위, %)



[그림] 기타 관심 영역 (주관식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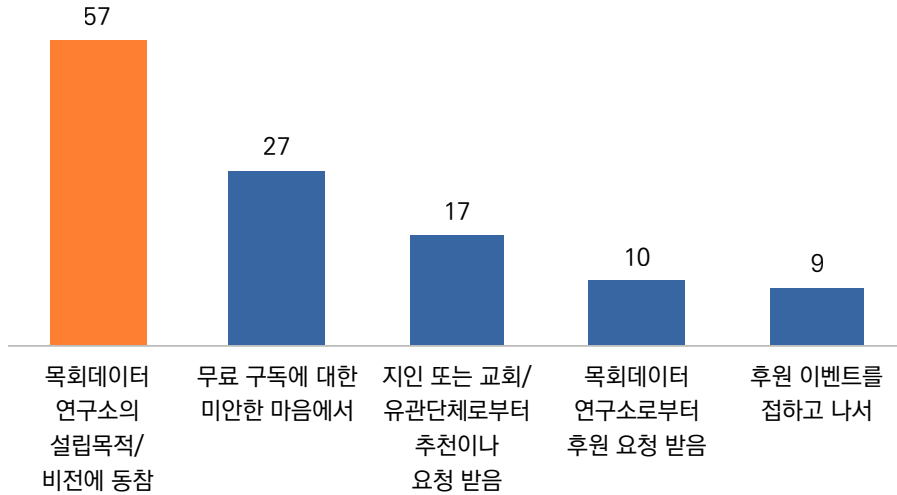


05

[후원 인식] 후원 계기, 연구소 설립목적/비전에 동참!

- ▶ 후원 경험자에게 후원 계기를 물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목적과 비전에 동참하기 위함’이 57%로 가장 많았고, ‘무료 구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27%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그림]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계기 (후원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5위, %)



넘버즈 한 호가 만들어지기까지

- 넘버즈 발행 프로세스 -

D-30, 주제 선정

넘버즈의 주제는 보통 한 달 전에 확정합니다. 주로 언론에 보도된 기독교, 사회 관련 이슈 중 현재 시의적으로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며,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일정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주제가 확정되면 접근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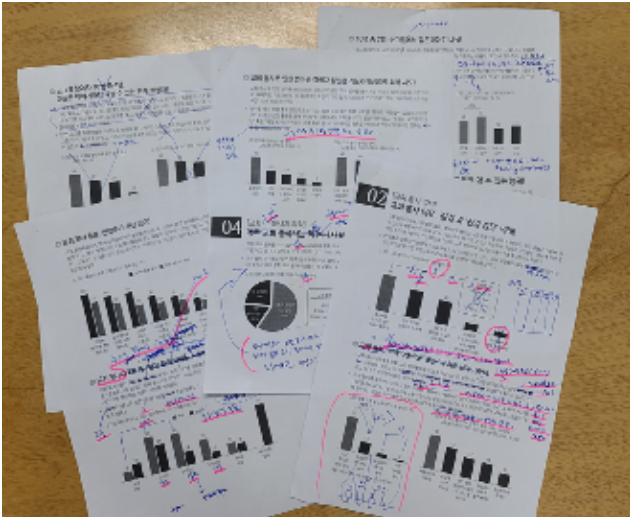
D-14, 구성 기획

선정한 주제의 목차와 구성을 기획합니다. 기획의 핵심은 해당 사안의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선별하고, 제목(타이틀)으로 요약하고 조사 통계 전문 연구원에 의해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D-7, 1차 편집 디자인

구성(안)을 바탕으로 넘버즈를 디자인합니다. 그래프의 종류, 폰트의 크기, 여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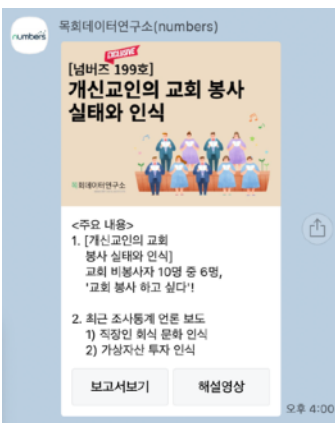


D-4, N차 편집 디자인

디자인 된 넘버즈를 여러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수정과 보완을 반복합니다. 순서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그래프를 바꾸기도 하고 문구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최종 발행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D-3, 시사점 작성, 해설 영상 촬영

해당 주제와 구성 결과를 바탕으로 해설과 시사점을 작성합니다. 유튜브에 공개되는 해설 영상 안에 해당 넘버즈의 주요 내용 요약을 담습니다.



D-day, 넘버즈 발행

완성된 넘버즈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발송하고 공개합니다.

넘버즈 목록 (1~200호)

- 1호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인구 절벽
- 2호 '한국, 사회적 신뢰도 OECD 국가 중 하위권, 27위'
- 3호 모바일 시대가 온다!
- 4호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5호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 6호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
- 7호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
- 8호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
- 9호 유튜브 홀릭!
- 10호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11호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12호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13호 추석, '즐거운 명절이지만 여성에게겐 힘든 명절이다' 89%
- 14호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15호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16호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17호 장애인 실태,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18호 장애인 실태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19호 한국사회 혐오, '심각하다'96%
- 20호 넘버즈 특별판(2019년 6-10월 요약)
- 21호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22호 '당신은 끈대 입니까?', 끈대 현상 분석
- 23호 학벌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24호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25호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변화
- 26호 '개취'를 아십니까?(개인 취향 인식)
- 27호 한국인의 기부, 기부 단체의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8호 2019년 넘버즈 Top7
- 29호 2020년, '1인 가구' 대세
- 30호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31호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32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소비,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다
- 33호 빅데이터로 본 '2019년 한국 교회'(주요 5대 이슈)
- 34호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35호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고독 지수, 78점!
- 36호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 37호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38호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39호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40호 악플도 범죈다, 65%
- 41호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42호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발표
- 43호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4호 한국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45호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46호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47호 학벌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48호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삶
- 49호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50호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51호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52호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
- 53호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54호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55호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56호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57호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58호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59호 우리 국민 절반,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60호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61호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62호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63호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64호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65호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66호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67호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68호 트로트 전성 시대!
- 69호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70호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71호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72호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73호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74호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75호 개신교인, 인공지능 설교 반대한다' 65%
- 76호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77호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78호 '2020년 넘버즈 Top 8!'
- 79호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80호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81호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82호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83호 기독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84호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85호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 86호 '코치님이 나무베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 87호 현대인,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꼴로 '미세 플라스틱' 먹고 있다!
- 88호 2030세대, '내 인생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72%
- 89호 '통일 필요하다', 목회자 90%, 일반 국민 53%
- 90호 '한국 사회 현실, '개천에서 용 난다!' 2006년 7.5% → 2018년 6.4%
- 91호 코로나19,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 강화시켰다!
- 92호 한국 교회, 코로나19 관련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 93호 초등학생, 최근 2년간 성인 영상물, 도박성 게임 이용률 크게 증가!
- 94호 워킹맘의 95%, 자녀 문제 등의 이유로 퇴사 고민한 적 있어!
- 95호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느낀다' 82%
- 96호 주일예배 드리는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신앙생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높게 나타나!
- 97호 종교인 비율, 최근 7년 사이 10%p 감소!
- 98호 우울증, 20대를 괴롭히는 젊은이의 병!
- 99호 일반 국민, 신조어는 한글 파괴 행위, 그러나 20대는 한글을 창조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 100호 우리나라 국민 암 걸릴 확률 3명 중 1명 이상!

넘버즈 목록 (1~200호)

- 101호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 코로나 이후 어른보다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나!
- 102호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하락, '아버지' 상승!
- 103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 심각성 점점 높아져!
- 104호 모바일 종교 거래 이용자 1,640만 명 돌파!
- 105호 개신교인, 동성애 '인정해줘야 한다' 15%, '인정하기 어렵다' 76%!
- 106호 지구 온도, 1만 년에 걸쳐 4도 올랐는데, 산업화 후 100년 만에 1도 상승!
- 107호 개신교인, AI 설교 '반대한다' 65%
- 108호 코로나19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 109호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 전체의 20%!
- 110호 30년 후, 전국 시군구의 69% 소멸 위기!
- 111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현재 이중직 하고 있다' 3명 중 1명꼴!
- 112호 세상의 중심은 나!
- 113호 대한민국 자살자 하루 36명, OECD 여전히 1위!
- 114호 우리나라 성인 44%, 지난 1년 간 책 1권도 읽지 않았다!
- 115호 우리나라 성인 남녀 31%, 타투(문신) 경험 있다!
- 116호 [한국 교회 소형 교회 위기], [2020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 117호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 [2020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결과2]
- 118호 워드코로나 전환, 국민의 58%가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 119호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 없다'!
- 120호 노인 자살률, 전체 자살률보다 2배 가까이 높아!
- 121호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 76%가 삶의 어려움 있었다!
- 122호 새신자의 믿음을 갖게 한 최대 요인, 성경공부!
- 123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11%) 치매 환자!
- 124호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 125호 [2021 한국인의 종교활동 및 종교인식]
- 126호 2021년 한국교회,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가장 들끓어!
- 127호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 소그룹
- 128호 우리나라 총인구, 작년(2021년)부터 감소 시작!
- 129호 기아로 인한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
- 130호 교회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목회자보다는 일반교인에게서 훨씬 많아!
- 131호 2030세대,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 132호 개신교인, '점을 본 경험 있다' 23%!
- 133호 비개신교인 워킹맘 10명 중 3명, 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있다'!
- 134호 한국교회,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57%!
- 135호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 136호 총 자녀 수(현재 + 계획), 종교인/무종교인 통틀어 개신교인이 1위!
- 137호 청년세대와 60대(교회장로 연령), 서로 "세대 차이 느낀다" 80% 이상!
- 138호 5060세대,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 139호 한국의 청년, '돈만 있으면 명품 사겠다' 65%!
- 140호 서울 강남 3구, 대한민국 부자(금융자산 10억 이상)의 21%가 살고 있어!
- 141호 농어촌교회, 60대 이상 교인 89%!
- 142호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직장생활], [2021 양성평등 및 가정에 대한 국민인식]
- 143호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회가 바뀌거나 준비해야 할 것, '부모 교육' 51%!
- 144호 한국의 아내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19%!
- 145호 위기청소년 절반가량, 가정폭력 피해 경험있다!
- 146호 코로나 이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도들의 신앙약화 현상 두드러져!
- 147호 개신교인, '현재 영적 갈급함 느끼고 있다' 64%!
- 148호 교인 500명 이상 대형교회 담임목사 2명 중 1명 '번아웃 상태'!
- 149호 2022년 한국인 '행복하다' 57%!
- 150호 개신교인,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캠페인 한다면 '참여 의향 있다' 84%!
- 151호 온라인 예배 경험자들, '온라인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 생각한다' 82%!
- 152호 한국인,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55%!
- 153호 통계로 보는 마을목회,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 154호 국민 대다수(85%), 올해 1박 이상 여름휴가 계획 있다!
- 155호 미혼여성, 결혼하겠다는 사람보다 안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
- 156호 부목사, 하루 9.8시간, 주 5.7일 근무!
- 157호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규모, 향후 10년간 34배 성장 예상!
- 158호 노후의 3대 가족리스크 : 자녀리스크, 부모간병, 황혼이혼
- 159호 71세 이상 고령 교인의 절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사역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 160호 50년 후, 환갑이 전국민의 중간 나이!
- 161호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 피해자, '여성'이 86%!
- 162호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층에서 10대 자살률 증가 가장 높아!
- 163호 10대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 164호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꼴(24%), 실제 자살 시도!
- 165호 고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의 7%,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 믿게 됐다'!
- 166호 외로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일반국민보다 덜 외롭다!
- 167호 게임 이용자, 주중 하루 평균 2시간 12분 게임한다!
- 168호 1) 온라인 사역 2) 소그룹 3) 평신도 Advisor 4) 뚜렷한 목회비전
- 169호 목회자들의 내년도 목회 중점 사항, '현장 예배'와 '소그룹'!
- 170호 15~44세 임신 경험 여성 6명 중 1명꼴, 낙태 경험있다!
- 171호 국내 이주민, 한국에서 전도 받은 적 없다, 71%!
- 172호 대한민국 커피 전문점, 코로나 이후 79% 늘었다!
- 173호 코로나 이후, 3040세대 중 현장 예배 이탈자 43%!
- 174호 5~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 한국인 절반 이상이 '돈'!
- 175호 60세 이상 고령층, 1년 중 반년 이상을 몸이 아픈 상태로 지낸다!
- 176호 미국 한인교회, 코로나 기간 중 한국교회보다 신앙이 더 강해져!
- 177호 한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져!
- 178호 한국교회 언론보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 기사 앞질러!
- 179호 개신교 대학생, 동성애 찬성 40%!
- 180호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 [선교단체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
- 181호 한국 노인의 여가 활동 순위, '산책' 다음으로 '종교활동'!
- 182호 2023년 현장 예배 참석률, 장년/교회학교 모두 크게 증가!
- 183호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 184호 교회출석자 3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있다고 생각해!
- 185호 거리노숙인 10명 중 4명은 '실직'으로 거리노숙 시작해!
- 186호 목회자 10명 중 8명, 앞으로 설교 준비에 챗GPT 사용될 것!
- 187호 65세 이상 독거 노인 수,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188호 장애인 3명 중 2명, "나는 차별받고 있다!"
- 189호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놓여준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84%!
- 190호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의 결혼 의향 높다!
- 191호 한국인, '가정/워라밸'보다 '일' 중요시!
- 192호 폰대 3중 세트,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하면...', '나 때는...!'
- 193호 담임목사의 정치적 성향, 동 연령대 일반국민에 비해 보수적!
- 194호 코로나 이후 성장하는 교회, 소그룹 활동과 연관성 매우 크다!
- 195호 종교활동 시간 많을수록 외로움 극복 비율 높아!
- 196호 개신교인 51%, '헌금하는 만큼 복 받는다' 생각해!
- 197호 출석교회가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17%는 교회 이탈 가능성!
- 198호 초등학교의 성인 영상 이용률, 2018 20% → 2022년 40%로 급증!
- 199호 교회 비봉사자 10명 중 6명, '교회 봉사 하고 싶다'!
- 200호 넘버즈 200호 특집 구독자 설문 조사 결과

넘버즈 200호 축하 메시지

- 목회자 -

한국교회의 목회자, 선교사, 성도 모두에게 나침판과 등대와 같은 유일무이한 통계 지표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그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유럽 파송 선교사로 사역 중에 넘버즈를 알게 됐고, 영적으로 어두운 밤바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듯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주의 종에게 보다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그 데이터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도움과 도전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영적 진리를 밝혀나가는 교회와 각 지도자에게 이러한 데이터의 제공은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에너지의 공급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어 더 큰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함 없이 이 귀한 사역이 순조롭게 뜻을 펼쳐나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평택순복음교회 협동목사 이창배

매주 보내주시는 넘버즈는 이 시대를 읽고 설교 준비에 통계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말씀을 더욱 힘있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해 주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대를 읽는 다양한 분석과 통계 자료를 통하여 넘버즈의 활용도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한마음교회 담임목사 김상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 설교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설교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산호교회 부목사 서정윤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교회에 유의미한 통계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있는 행동에 귀한 근거를 제공해 준 이 사역을 주께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책임있는 그리스도인,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는데 귀한 자료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동 은평교회 목사 김동권

그동안 설교, 강의 시 넘버즈의 연구 조사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뿐 아니라 일반 사회 통계 역시 다양한 분야에 조사를 올려주어서 너무나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역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전을 기도합니다

예배하는교회 담임목사 이정나

넘버즈 200호 축하 메시지

- 목회자 -

넘버즈 200호 축하의 글을 넘버즈 3행시로
해 보겠습니다.

넘 : 넘버즈의 모든 데이터는 목회에 중요한
자료이고

버 :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자료이기에

즈 : 즘든둥이(2000년 새해에 태어난 신생아,
태어난 아이를 이르는 말)처럼 2000호까지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망원교회 목사 정준

이제 넘버즈는 저에게 다음 한 주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는 세
상과 연결해주는 귀한 통로입니다.

지난 넘버즈 153호 '마을목회 인식조사' 자료는 앞으로 저희 교
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
면서 목회의 패러다임을 다시 세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러한 귀한 자료들 하나하나가 목회자인 저에게 앞으로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세우게 하고 현재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
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00호, 400호, 500호, 1000호 계속해서 발간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수원교회 부담임목사 이대응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더 많이 이해하고 지
금 시대에 살아가는 다음세대와 젊은 세대
더불어 노년과 여성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조사와 통계 자료를 통해 이 시대를 더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
셔서 늘 큰 도전이 됩니다.

서울우림교회 파송선교사 이성철

매주 필요한 것, 관심 가져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살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 나누어
야 할 것, 달라져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등등
정말 삶에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선별하
여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
고 기도하게 하는 동반자요 동역자로서 넘버
즈 200호를 축하합니다.

새순교회 담임목사 이성정

저는 올해부터 넘버즈를 구독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바람을 통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보단 성경 이야기만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넘버즈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되
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과 적용에 대해서 다시금 생
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넘버즈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자립하게 되면 작지만 함께 하는
후원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목사 박중호

넘버즈 200호 축하 메시지

- 목회자 -

처음에 넘버즈를 접했을 때, 왜 이제야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에 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국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넘버즈 구독은 목회자들에게 필수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300호, 500호, 1000호까지 많은 목회자에게 한국성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들꽃피는교회 목사 권평화

넘버즈 200호 달성에 축하드립니다. 날로 유익하고 향상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기에 더욱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대부분 교회가 작은 교회이므로 작은 교회에 와닿는 내용에 더욱 관심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세요.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파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주형

넘버즈 200호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시 목회 중심의 치우쳐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인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함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산척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수영

코로나 기간 중 귀 연구소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애독하며 목회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통찰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기획을 함에 있어 근거가 되기도 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넘버즈의 통계와 조사자료는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를 해석하고 활용할 문해력을 갖추게 된다면 지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산성결교회 전도사 박용훈

저는 설교에서 넘버즈의 자료들을 왕왕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소그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넘버즈의 통계를 통해 소그룹의 효과가 효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에 소그룹의 힘이 증명되었죠.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은 힘내셔서 계속 넘버즈를 발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넘버즈를 만드는 과정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작업이겠지만, 넘버즈의 한 호의 탄생은 성도들에게 매우 값집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회 부목사 유성용

넘버즈 200호 축하 메시지 - 평신도 -

넘버즈 카톡 알림에 설렘을 느낀다면, 이상한가요? 심지어 저는 여자친구 특보다 조금 더 설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게 넘버즈는 특별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제게 넘버즈의 정보는 찌는 듯한 더위에 부는 서늘한 바람입니다. 지친 우리의 삶, 그래서 각자도생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복음이 피워내는 작지만 위대한 가능성으로 넘버즈가 더욱 요긴하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청년 장영일

귀 연구소의 많은 통계자료와 정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목회 방향에 새로운 이정표를 띄운 것 같네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 연구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유동교회 시무장로 성중환

넘버즈가 200회를 맞이함을 축하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 관련 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공유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벌써 200회라니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성을 가지고 올바른 통계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등대와 같이 길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동교회 권사 김경희

메일로 좋은 통계를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정보로 한국 교회의 현주소 확인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도구로 쓰임받는 넘버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교회 집사 태효진

넘버즈의 정보는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긍정적인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양식과 같습니다~

천호동성결교회 안수집사 전병민

* 총 134분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추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당첨자(아메리카노)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가나다 순)

김*진(8453) 김*섭(1537) 김*만(1750) 김*휘(3143) 김*기(1660) 김*섭(1397) 김*용(1189) 남*우(3352) 박*식(9182) 박*식(3235) 여*갑(7187) 유*완(6556) 이*희(9081) 이*열(9116) 장*지(0130) 정*철(0191) 최*섭(3385) 표*근(1303) 한*숙(4097) 홍*임(6264)

넘버즈의 시작과 성장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지용근

2016년 어느 날 대학 친구들끼리 대구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 친구가 함께 했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동산언덕, 선교사 묘지 등을 방문하던 중 목사 친구가 제게 한마디 건넵니다. “목사들이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데 너는 조사통계 전문가니까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목사들을 위해 제공해 주면 어때?” 이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후 3년 뒤 그 목사 친구의 말대로 넘버즈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2019년 1월 연구소를 설립하고 여러 목회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면서 목회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 나갔습니다. 한 페이지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 온종일 꼬박 자료를 찾고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편집 디자인도 중요하기에 수없이 반복해서 디자인을 변경해 가면서 넘버즈의 모양이 조금씩 잡혀갔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창간호가 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에 없던 게 나왔지만 많은 분들에게 확산되기는 어려웠습니다. 50대 후반,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천직으로 여겨왔던 조사통계 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달란트를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라 문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넘버즈가 목회자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넘버즈는 코로나19가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00호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오리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주 한 주 최선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넘버즈가 오기에는 주변의 제게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전국의 후원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연구원들이 일할 수 있었고, 의미있는 기독교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소로 날아온 200호 축하 인사말 중에 기억나는 글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목회 방향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말, 300호 500호 1000호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접할 때 무언가 무겁고 큰 책임감이 다가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연구원들 모두가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넘버즈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연구소 직원들 모두 감사한 마음을 뒤로 하고 300호 500호 1000호를 위해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AI방과후교회학교(이성모)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1 |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교회 최초로 '이단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3. 주요 내용
 - 1)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2) 조사 결과의 의의 및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 방안
4.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02-322-0726)

| 연구소 소식 2 |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넘버즈의 주요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 www.instagram.com/mok_data

